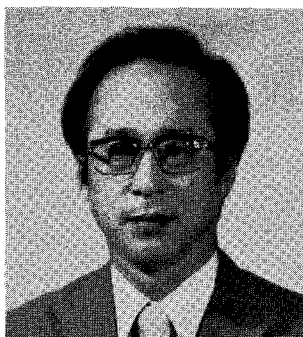


南海의 나무들



任慶彬
원광대 교수



그림 1. 南海郡지도

南海郡은 섬으로 되어있고 南海大橋를 가지고 陸地部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네번째로 큰섬. 섬하면 벌써 우리는 情熱이라든가 가슴의 두근거림을 느끼게 된다. 그러한 섬에 나는 나무를 보러갔다. 南海의 地層은 中生代의 慶尚系가 80%를 차지했다. 南海郡은 南海와 昌善이라는 두섬으로 되어 있는데 섬南海에 海拔高 786m의 望雲山이 있고 有名한 錦山은 海拔高 701m이다. 섬 昌善에는 海拔高 468m의 대방산이 있다. 南海와 昌善은 昌善大橋로서 連結이 되어 있다.

앞바다의 따뜻한 暖流의 영향을 받아 年平均氣溫 14.2℃, 1月平均氣溫 4.0℃, 8月平均氣溫은 25.1℃이며 年降水量은 1,452mm나 되어 우리나라 3大多雨地域의 하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유자나무, 치자나무, 비자나무, 후박나무등이 자라는 곳이다. 치자, 유자, 비자가 많이나는 곳으로 그래서 3자島라는 別稱이 있기도 하다.

1989年 12月 12日(火) 南海大橋를 넘어 南海邑으로 갔는데 이미 저녁의 어둠이 내려 깔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南海郡守의 茶의 권유도 있었으나 우리는 사양하고 먼저 昌善面大碧里에 있는 왕후박나무를 보려고 차를 몰았다. 大碧里 丹項마을 들판 한가운데 서있는 왕후박나무는 수령 약 500年으로 推定되는 老巨木인데 天然記念物 299호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줄기의 밑등부터 줄기가 11개로 갈라져서 盃狀으로 斜上하면서 넓은 半圓狀의 樹冠을 이루고 있다. 南海邑에서 丹項마을까지 가는데에는 車로 40분정도 소요된것으로 짐작하고 있는데 왕후박나무에 도달했을때에는 어두운 상황이였다. 바닷가에서 100~200m쯤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었다. 가을에 뿌린 보



南海丹項마을 왕후박樹形 1989. 12. 12

리가 짝이나서 제법 푸름의 이랑을 만들고 있는 그 들판안에 웅장한 모습의 왕후박나무였다. 왕후박나무 (*Machilus thunbergii* var. *obovata* Nakai)는 후박나무 (*Machilus thunbergii* S. et Z.)보다 잎이 더 넓은 것으로 구별이 되고 있다. 그래서 廣葉厚朴으로 쓰는데 南海岸에 分布하는 것으로 樹皮가 藥用으로 쓰이는 것은 후박나무와 다를것이 없다.

두터운 葉質의 잎에는 鋸齒가 없고 진한 綠色을 띠우며 비교적 긴 葉柄이 發達해 있다. 光線이 不足한 어두운 狀況이었으나 最善을 다해서 사진기를 구사했다.

이나무에는 傳說이 담겨있다. 약 400년 전 이마을에 사는 할아버지가 잡아온 큰고기배에서 種子를 發見하고 그것을 심은 것이 이나무로 되었다고 하며 해마다 설달 그믐날이면 洞祭를 올려 豐漁와 無事를 기원하곤 한다. 또 임진왜란때 兵士들이 이나무 밑에서 점심을 먹고 休息을 취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그날저녁 우리는 海南邑으로 들어가서 깨끗한 호텔에 투숙했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차를 몰아서 望雲山 중턱에 있는 화망사 쪽으로 갔다. 절간옆에 돌밭이 있고 이

곳에 산닥나무 (*Wikstroemia trichotoma* Makino, 또는 *Diplomorpha trichotoma* Nakai)가 자라고 있다. 位置는 南海郡 고현면 대곡리 산99이고 약 3,000坪의 면적에 산닥나무가 散生하고 天然記念物 152호로 지정되어 國有林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차가 거의 화방사까지 갈 수 있고 산닥나무의 自生地는 바로 화방사에 이웃한 숲이다. 排水가 잘되는 北向의 山腹인데 소나무, 굴참나무 등 큰나무가 위에서 있고 산닥나무는 下層植生을 이루고 있는데 1-2m 높이의 다른 濶葉樹 幼木에 눌러서 키를 펴지 못하고 있다.

산닥나무는 木雁皮로도 말하고 낙엽하는 관목으로서 키는 1-1.5m쯤 되고 가지가 작살모양의 세갈래로 규칙적으로 分岐하는 성질이 있고 어린가지는 黃綠色을 띠어서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찾는때가 초겨울이라 열매만 달려 있었고 잎은 떨어져서 볼 수 없었다. 열매는 4-5mm 가량의 길이를 가지는 작은 것이었고 자세히 보면 열매 表面에 몇줄기의 稜線이 發達해 있다. 8-9월에 黃色의 꽃받침이 길이 6-8mm 정도로 發達해서 꽃으로 쓰인다. 잎은 卵形이며 對生하고 鋸齒가 없으며 뒷쪽은 흰색을 띠운다. 이것은 일본 本州(近畿以西), 四國九州의 山野에 흔히 보이는 것인데 우리나라 南部에도 있다고 記錄되어 있다.

木雁皮에 대해서 雁皮(*Wikstroemia sikkokiana* Fr. et Sav. 또는 *Diplomorpha sikkokiana* Honda)가 일본에 자라는데 이것은 잎이 大體로 互生하고 뿌리는 덩굴모양으로 땅속을 기어간다. 열매는 長卵形이고 흰털이 성기게나고 分布는 산닥 나무(木雁皮)와 비슷하다.

산닥나무의 樹皮는 高級紙 제조원료로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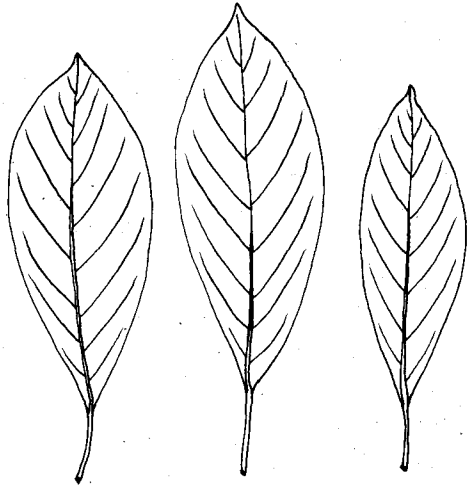


그림 2. 왕후박나무의 잎모양

는데 삼지닥나무나 닥나무와는 달라서 樹皮採取를 樹木의 發育期인 봄, 여름, 가을에 실시한다. 그理由는 發育期에 있어서 剝皮가 쉽게 된다는 것과 品質이 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줄기의 굵기가 1cm(直徑) 정도로 되면 끊어쓰는데 隔年 또는 3-4年마다 地上 3cm쯤 되는 곳을 切斷한다. 끊는 줄기는 가지가지는 除去하고 利用部分만 乾燥하지 않도록 자루에 넣어서 운반한다. 햇볕과 바람을 받아 乾燥하게 되면 좋지 못하다.

산닥나무는 漢字로 黃雁皮 蕘花 黃蕘花 또는 土地綿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화방사주변의 숲속을 살펴보았더니 곳곳에 어린 幼生이 나오고 있었다. 이것을 保護하고 키우자면 上木을 어느정도 疎開해서 지나친 被蔭을 막아주고 競爭狀態에 있는 다른 潤葉樹의 幼木(1-2m高)의 줄기를 切斷해서 산닥나무에 더 自由스러운 空間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었다. 지금의 상황으로 그대로 둔다면 다른나무에 被壓되어서 멀지 않아 없어질 것으로 느껴졌기 때

문이다.

산닥나무는 元來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日本부터 건너온 輸入種으로서 지금은 그 歷史가 오래되어 우리나라에 自生하는 것처럼 取扱되고 있다.

人類는 어떤 事實을 記錄으로 남기기를 원했다. 종이가 없는 초기에는 竹簡(대나무조각), 木片(나무조각), 짐승의 가죽등이 利用되었다. 유럽에는 너도밤나무가 많은데 이나무의 얇은 木片은 記錄用으로 이용되었다고 하며 Buche라는 이밤나무의 名稱이 곧 책(book)의 語源이 되었다고 한다.

孔子時代에는 竹片과 木片을 가죽끈으로 엮어 책으로 만들었을 것이며 가죽끈이 세 번이나 떨어지도록 讀書을 했다는 것은 이러한 記錄用具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策이란 글자는 竹을 다할(束)로 엮었다는 것인데 竹簡은 그당시 편리한 記錄用이 엮을 것이다.

지금의 종이의 發明者는 中國 後漢(AD 105年)의 蔡倫이라 하는데 後漢의 和帝는 그의 功을 생각해서 龍亭侯에 封했다고 한다. 蔡倫의 製紙術은 유럽으로 傳播되었다.

우리나라 高麗時代에는 紙所라는 貢物生産地가 있었고 朝鮮朝時代에는 全州, 南原 등은 有名한 종이生産地였으며 그뒤 世宗2年(1420年)에는 지금의 서울 세검정 부근에 造紙所를 두어 製紙를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때의 종이종류에는 蕘精紙, 柳木紙, 薏苡紙, 倭紙등이 있었다고 한다. 世宗10年(1428年)에는 日本으로 가는 通信使에게 倭紙製造法을 배워오도록했고 製紙原料인 닥나무를 改良하고자 世宗12年(1430) 8月 29日에는 對馬島에 사람을 보내어 倭楮(산닥나무)를 求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림 3. 산닥나무(倭楮)의 열매

林園經濟志에 다음과 같은 記錄이 있다. 우리나라의 닥나무(楮)도 製紙原料로서 좋은 것이나 가스라기가 일어나고 해서 산닥나무(倭楮)의 가볍고 광택이 있고 精緻한 것에 미치지 못한다. 산닥나무는 製紙原料로서 極上品인데 지금 점점 그生産이 줄어들고 있다. 祖宗朝에서는 사람을 보내어 그 열매를 구해오도록 하고 그것을 번식시켜 우리나라 南海岸 地域에 심었다. 그래서 이의 번식에 더욱 힘쓸 것이다.』

이것은 산닥나무의 섬유가 닥나무의 그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말한다. 筆者가 산닥나무를 본 것은 江華島의 寺刹週邊과 이번 南海 화방사 주변에서였다. 過去 製紙業이 僧業의 一種이었다는 것에 關聯시켜볼 때 現在 산닥나무의 自生地가 寺刹近處라는 것이 宜當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東國輿地勝覽에는 慶州, 巨濟, 固城, 蔚山 그리고 黃海道 豐川에 倭楮가 난다고 되어있기에 過去에는 그生育地가 더 넓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산닥나무의 열매를 약간 採取해 왔다. 뿌려서 苗木을 얻고 싶는데 어느 정도의 成果를 얻을런지 모르겠다. 산닥나무의 가지를 꺾어 標本으로 만들고져 했는데 그섬유가 여간 질기지 않았다. 몇가지를 標

本으로 만들어 놓았다.

산닥나무의 自生地를 떠나서 나는 다시 어제저녁에 본 왕후박나무를 보기 위해서 다시 丹項마을로 갔다. 햇볕상태가 좋아 더 좋은 사진이 얻어질것으로 믿었다. 갈길이 바빠서 나는 차를 몰아 勿巾防潮魚附林으로 갔다. 이것은 삼동면 물건리에 있는 천연기념물 150호이다. 面積이 약 7천坪이었는데 길이 약 1,500m 넓이 30~40m 되는 林叢으로서 큰나무들이 많이 서 있었다. 樹種으로서는 팽나무, 푸조나무, 상수리나무, 참느릅나무, 말채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후박나무, 때죽나무, 산딸나무 등을 들수 있다.

곳곳에 枯死木이 나타나고 있는데 補植을 해줄 必要가 있다고 느꼈다. 이숲은 潮風을 막아서 農作을 돕고 村落의 環境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林業이 우리의 先祖들에 依해서 造成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잘 保護되고 있는것은 무척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勿巾 바닷가에서는 잡은 멸치가 건조중에 있었고 아주머니들이 그것을 매만지고 있었다. 이숲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기떼가 서식할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것을 알고 이러한 숲을 만든 先祖들의 지혜와 努力에 敬意를 표할 뿐이었다. 이숲을 잘 보호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그곳을 떠났다.

南海의 영광을 씹어 보면서 歸路에 오를 때 貴重한 유자차의 선물을 받았다.